

있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내'가 되는 것이다.

무슨 일에 있어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을 하기보다, 누구의 덕분이라는 사고개념으로 바뀐다면 이 사회는 더욱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하루가 즐겁고 나아가서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분명 사람은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기왕이면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살다보면 자신의 터전에서 칭찬도 듣고 때로는 비난도 듣게 된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설령 남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혼란에 빠져선 안 되고, 달콤한 말을 주고받다가도 오만해지면 금세 사람들을 잃게 된다.

또 정작 자신들은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의 그물을 벗어나는 것은 더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문득 어디론가 떠나

고 싶은 때도 있었다. 삶에 지쳐서 이기도 하겠지만 잠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는 일에서 과감히 손 놓고 떠나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길수도 있겠다.

그러니 아귀다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잠시만 내려놓고 자신을 보자. 보장 받지 못하는 내일일랑 너무 기다리지 말자.

신년 새해 계획 부질없는 것이다. 그냥 지금만 생각하며 살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비로소 모든 게 채워지고 행복할 수 있다. 이웃에게 베풀면 감사의 말을 듣지만, 자식에게 물려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움도 모른다.

사람이 죽기 전 항상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우리 모두 뒤늦은 인생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웃에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남은 삶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삶을 살자.

삶을 우아하고 뜻있게 보내려면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는데, 최첨단 이지스 전투함이 다수 포진해 있던 미항모 전단은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사해드-136드론이 함대 인근 공역을 간통해 무려 700~800Km를 날아가 민간 상선을 타격할 때까지 발견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이고, 북한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자폭 드론을 선물 받기도 한 나라이다.

북한이 작심하고 영가형 드론에 생물, 화학 무기를 실어 보내면 수도권 2000만 국민이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3. 국방부 드론 운용 양상

군 당국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조국 해방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전략 무인정찰기인 셋별 4형이 등장했다. 그간 타격용 무기 체계만을 공개했던 것과 다르게 정찰체계를 선보인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최근 드론의 정찰과 타격 체계를 연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전쟁의 드론 운용 양상은 저가, 민수형 모델을 적극 활용해 전선에서는 즉각적인 타격을, 후방에서는 국가 전략자산 및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각 군 드론 전략을 통합하고 적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책, 타격, 심리전, 전자 자기전까지 수행하고자 한다.

드론 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4. 최근 북 군사위성 발사 및 군의 대응

북한은 11월 21일 22시 42분 경 동창리 발사장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다. 우리 군의 대북 경고성명(11월 20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전 예고한 발사일(11월 22일 00:00~11월 30일 24:00) 이전에 조기 발사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제 8차 당대회(2021년 1월) 3년차를 결산하는 9차 당 중앙위 전원 회의(12월)를 앞두고 전략 무기 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 정찰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를 선전 의도가 보였다.

군 조치 사항으로 감시 경계 태세로 북 추가도발 대비 집중감시 및 대응태세강화 이지스함 및 탄도탄 감시 레이더 운용 전 패트리엇, 천궁II 전투대기와 한미일 긴밀한 정보공유와 적시 언론 공보조치로 즉각 가용한 한미연합 전력 활용하 공동대응, 그리고 한미 공동탐지 추적과 발사체 잔해물 탐색 인양 추진으로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실시하였다.

끝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안의 최전방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했다. 북한은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고 야간경계근무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압박에 일회일비하지는 말되,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안보 분야에서 만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추가로 긴장을 조성하고 기습적인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움직임에 비례하는 대응은 불가피하다. 한·미 연합자산을 총동원해 억제력을 갖추고, 물설 틈 없는 감시 및 경계태세로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국제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마땅찮아 하는 중국은 북한에 유일하게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국가다. 한, 중 정상회담뿐 아니라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반복 강조해야 할 것이다. 2016-2017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체제결의 채택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 드론 운영 소고(小考)

김만조 (예 중령, 학사 70기, 국방전우신문사장)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2.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3.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정답까지도 말해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여행 중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주막집에 몸이 아픈 딸아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빨강가방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빨강가방에 짐이 있고 여행 중이니 줄 수 없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주겠다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주막집에 들렀을 때 그가 떠난 뒤 곧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에 한 글귀 새겼습니다. 바로 “사랑은 미루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알몸으로 날 때는 주먹을 움켜지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 이 세상에 그대로 놓고 손을 펴서 아무 말 없이 무소유로 떠납니다.

지금 이순간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가장 값진 시간인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필자는 국방 드론 운영 소고를 피력하여 본다.

1. 드론의 정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영어의 의미로 보면,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드론 “a remoteless controlled piloted aircraft or missile”로 되어 있다. 이 개념으로 드론은 ‘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말한다.

한국 두산백과사전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한다”고 한다.

2. 드론 운용의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드론은 이제 현대 전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은 첨단과학기술의 상징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조립 컴퓨터 만들 듯 상용 부품을 구해 누구나 만들고 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드론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완성품이나 관련 부품들의 공급도 크게 늘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의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란제 드론 사해드-136은 영가형 드론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해드-136은 가격이 워낙 싸고,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 처음에는 조종의 대상이었다. 드론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 물량이 크게 늘어나 규모 경제가 형성된 덕에 지금은 1만 달러 안팎 비용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란 사해드-136은 지난 24일, 오만 남부 해역에서 이스라엘 기업가와 연관된 화물선을 공격하는데도 사용되면서 위협성을 재차 입증했다. 당시 이란과 괴격화물선 사이에는 미해군 항모 전단이 배치돼 있었

웃음의 명약(名藥)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주)토브넷 회장)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보라매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송파구 노인회에서 필자의 책 『리더의 시 리더의 격, 한경 BP 출판, 2022년』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강연 부탁을 받고 제목으로 ‘시를 읽으면 무엇이 좋은겨?’를 정해 가지고 갔다.

어르신들에게 ‘시를 읽으면 몸과 마음이 춤을 추듯 즐거움을 주며, 그림 그리 듯한 이미지를 시각화 할 수 있으며, 숨은 스토리 사연을 찾을 수 있고, 시공간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처음 노인회 입구에 들어섰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문구가 시니어 센터 입구에 붙어있었다. 이런 명구를 보았기 때문에 웃음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토픽이라 생각하여 즉석에서 ‘웃음의 명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더 해 드렸다.

‘웃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먼 커즌스(Norman Cousins, 1915~1990)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는 52세에 ‘강직 척추염’이

라는 병에 걸렸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서만 생활하여야 했고 담당 의사도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약 15분만 웃어도 2시간 이상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심지어 담당의사가 염증 수치까지 줄었다며 노먼씨에게 의사도 모르는 무슨 비방을 썼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약을 끊고 웃음 치료에 전념한 결과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2년 뒤에는 휴직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웃음 치료의 효과에 매료돼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하여 그는 베스트 셀러 『웃음의 치유력』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책에서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양약이며, 모든 병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니 웃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며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확신을 갖고 웃음 전도가 되었다.

기분 좋은 웃음은 10분간의 운동효과와 맞먹으며 웃으면 심장박동수가 두 배로 늘어나 폐에 나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교체

되어 들어가므로 확실한 유산소운동이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웃는 표정을 흉내내기만 하여도 행복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는 이유 없이 웃기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제임스 랑게 이론(James-Lange Theory)'으로 정서심리학의 생리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많이 웃으면 면역기능까지도 향상된 사례를 오늘날 동서양 의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팔십 평생을 산다고 보아도 잠자는데 26년, 밥 먹는데 6년인데 하루에 5분만 웃어도 100여일 밖에 안 된다. 하루에 웃는 회수를 늘려 행복 지수를 더욱 더 높이면 행복감이 더 충만하게 된다.

웃음은 심신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키워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펜실바니아대의 캐런 레이비치(Karen Reivich)와 앤드류 샤테(Andrew Shatte)

교수는 『절대 회복력』에서 “회복탄력성은 내면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도구며 국가적 사회적 재난을 겪은 뒤에도 곳곳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지렛대”라고 기술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훈련으로 '뒤센 미소' 짓기가 있다. 이는 프랑스 심리학자 기욤 뒤센(Guillaume Duchenne, 1806~1875)의 이름을 따서 '입에서부터 눈까지 움직이는 미소'를 말하는데 사람의 뇌는 자신의 즐거운 표정을 느끼기 때문에 진짜 파안대소(破顔大笑)로 웃으면 더욱 더 즐거워진다고 한다.

노인회 사무실 입구에 걸려 있는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하여 어르신들이 ‘뒤센 미소’로 파안대소하며 많이 웃어 ‘웃음의 명약’ 효과를 거둬 행복한 노후를 사시기 바란다 고 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역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의 물음에 노부부는 “하버드대학교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니, 총장님이 당신의 이웃집 사람이요? 총장님처럼 높은 분이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소?”라며 비웃으며 경비원이 노부부를 정문 밖으로 몰아냈다.

경비원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노부부는 참으면서 경비원에게 물었다. “이만한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경비원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닥들이 그건 왜 묻는 거요? 어서 나가거나 해요”라며 화(火)를 버럭 냈다. 노부부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되돌렸다.

사실 이 노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金鑛)과 철도사업(鐵道事業)을 하는 엄청난 재력가(財力家)였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런데 외아들이 15살에 장티푸스 질병에 걸려 사망하자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獻納)하기로 마음먹고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상의하려고 방문했던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경비원에게 쫓겨난 노부부는 5년 후 캘리포니아주에 자기 이름

(Stanford)을 붙인 대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가 바로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이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전해 들은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잘못을 반성하며 정문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글을 내 걸었다. “책 표지만 보고 책 속의 내용을 예단(豫斷)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인이나 서양인은 사람의 외모를 책 표지로 비유한다.

외모(外貌)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곤란(困難)하다. 학벌이나 가문, 외모가 중요하게 아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의 인성(人性), 품성(品性)을 제대로 갖춘 사람, 사람 냄새가 나며 됨됨이가 좋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얕은 내(川)는 바닥이 보이지만 깊은 강(江) 물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 ‘물취이모(勿取以貌)’란 말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를 탄생시켰다.//

물취이모(勿取以貌)_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전대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면접시험에서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이 말처럼 기다란 응시자에게 “당신은 지금 마치 낡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면.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무엇이 다른지 알겠는가?”라고 면접관이 물었다.

이에 응시자는 얼굴을 붉히거나 화(火)를 내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입니다. 그리고 결례되는 질문에 대답하는 쪽은 바보입니다.”라고. 응시자의 명답 때문인지 응시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재학당에 입학 때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구술시험을 보았다.

선교사 :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안창호 : 800리쯤 됩니다.

선교사 :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까지 왔는가?

(도산이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면서 반문했다)

안창호 :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里)입니까?

선교사 : 80,000리쯤 되지.

안창호 : 80,000리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러 왔는데 겨우 800리 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산은 배재학당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재치와 배짱 그리고 면접관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도산의 순발력이 면접관인 선교사를 감동시킨 것이다.

‘말 물(勿)+가질 취(取)+써 이(以)+얼굴 모(貌)’자의 ‘물취이모(勿取以貌)’란 말이 있다. ‘외모(外貌)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冰山)의 일각(一角)’일 뿐이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역사 속의 비화(秘話)다.

조선 시대 ‘황희 정승’이 누추한 옷을 입고 길을 걷다가 시장기를 느낄 무렵 잔칫집을 지나다가 “한술 얻어먹을 수 있을까?”하고 잔칫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대문에서 하인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는 “배가 고파서 그러니 요기나 하자”며 간청해도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쫓아냈다. 그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집에서 다시 잔치가 열려서 황희 정승이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그 집을 다시 찾았다.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이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황희 정승을 맞이하고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해진미(山海珍味)로 대접했다.

그러자 황희 정승은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옷소매 속으로 잔뜩 집어넣는 게 아닌가? 이를 본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왜 이러시냐?”고 물었다.

이에 황희 정승이 답했다. “며칠 전에 허름한 옷으로 찾아왔을 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만 오늘 웅숭한 대접을 하는 것이 옷 덕택이니 음식을 먹을 자격은 이 옷이 있는 것이 아니요?”라고. 잔칫집 주인과 하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實話)다.

미국 북동부에서 명문대학교인 ‘Ivy-League’ 8개 대학교는 <Harvard, Yale, Cornell, Columbia, Dartmouth, Brown, Princeton, Pennsylvania>를 꼽는다. “아이비리그”라는 용어 자체는 1930년대에 이 학교들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학문적 우수성과 명성의 동의어가 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대학교들의 건물이 담쟁이(ivy)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인해 ‘아이비’ 리그(담쟁이 연맹이란 뜻)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 어느 날, ‘Ivy-League’ 8개 대학교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Harvard University(1636년 개교) 정문을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老夫婦)가 들어서려는데 경비원이 막아섰다.

“여기는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경비원

충절의 날개

김상준 (대령, 공사 48기, 15비 항공작전전대장)



유구한 날개의 혼 이어받아
겹겹이 쌓여온 애국의 충절

하늘이 허락한 무대 위에
불굴의 신념 뿜어낸다

용매한 날개들의 거룩한 행진
머나먼 야인의 야망 잠재우네

북극의 빙하조차 녹일 뜨거운 열정
평화의 바람 휘몰아치리

시대의 위대한 꿈이어
찬란한 빛 되어 날개 위로 흘러라

고요한 새벽녘 달빛 벗 삼아
오래된 약속 지키러 창공 누비리//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10월19일 1전비 주관의 체육대회에 지부임원들이 동참했으며, 11월 3일에는 김복천 부회장 농장에서 지부 회장단과 1전비 지휘관참모가 단합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1전비 초청 예비역초청행사에 60여명의 예비역이 참석하였고, 11월12일에는 1전비 전투요원체력단련대회에 지부



회원 20명이 동참하였으며 이날 금일봉의 위문금을 지휘관에게 전달하는 등 현역과의 유대를 돈독히 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11월 15일 대구지부와 광주지부의 영호남 달빛교류 행사를 대구기지에서 광주 임원과 함께 F-15항공기 견학과 11전비단장 환영인사

에 이어 친선골프를 통한 친목을 다졌다. 만찬시에는 양측의 기념품 전달 등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양측 임원 26명이 서로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좌중언)는 12.18일 시내 소재 음식점에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공군전우회'라는 슬로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제주지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김해지회

김해지회(지회장 임현상)는 12월 22일 시내 음식점에서 지회원들이 모여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임 지회장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지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동두천지회

동두천지회(지회장김정수)는 12월 15일 지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행사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김지회장은 "회원 모두가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12월 22일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행사를 가졌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는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회원, 보라매 봉사단이 함께 자리를 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양평지회

양평지회(회장 김수영)는 12월 3일 양평읍 소재 식당에서 2023년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모임에는 원로회원 이흥우 고문(공12·소장)을 포함하여 회원 및 부부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모임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전 양평군수,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이



태규 의원은 공군헌병 360기로 양평지회에 입회하기로 했다.//

영주지회

영주지회(지회장 허기영)는 12월 12일 지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결산보고후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회장단 선출은 현 허기영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허 회장은 연임 인사말에서 "2024년은 지역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회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회

진주시회(지회장 오기호)는 12월 19일 남강투립호텔에서 지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오 지회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전우회 위상제고 및 회원 확충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원주시회

원주시회(지회장 김구식)는 12월 14일 회원 및 가족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행사를 갖고 회원 및 가족간 우의를 다졌다. 김 지회장은 "올 한해 회원 및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지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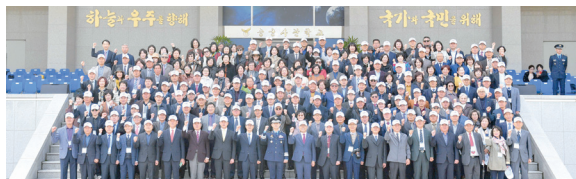
장석환 신임 회장 취임
공군사관학교(공사) 총동창회는 1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석환(예 공군소장) 전 병무청장을 2024년도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했다. 공사 총동창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1983년 공사 31기로 입관한 뒤 공군2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을 거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26대 병무청장을 역임하였다. 정 신임회장은 “항공우주군으로 퀀텀점프를 지향하고 있는 공군과 공사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의 역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공군학사장교회(회장 서영득)는 11월 4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제14회 공군참모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모금된 1천만원은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특히 공군학사장교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원년에 치러진 이번 14회 대회는 그 어느해 보다도 뜻깊고 의미 있는 대회였으며, 공익법인 지정후 첫 행보인 10100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어, 공군발전과 사회 공헌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기틀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군정보화기획참모부장, 제15비 특수임무비행단장, 공군 현역 장교와 김은기 공군전우회장 및 학사장교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사장교회 참모총장배 골프대회



항과고총동창회 회장단, 미사일사령부 군자포대 위문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회(회장 전용기)는 10월 2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동문과 가족 240여 명이 참석하여 “총동문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에는 성무연병장에서 기념식을 통해 사관생도의 사열을 받고,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공군발전기금을 전달하였으며,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공사와 17비 체력단련장에서 골프와 속리산 관광 및 문화탐방을 한 후 저녁에는 성무대 도산관에서 만찬과 함께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 만남의 날” 행사는 공군사관학교 주관으로 2009년부터 격년제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총동창회(회장 김진홍) 회장단은 12월 5일 공군미사일사령부 내 군자포대를 방문해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대장은 “먼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 하다”며, “전부대원이 하나로 단결하여 빈틈없는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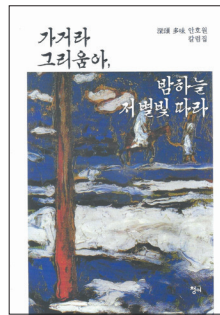
부사관전우회, 부대 위문



부사관전우회(회장 차주성)는 12월 1일 회장단 9명이 공군 8910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지휘관 참모와 환담을 나누고 1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차 회장은 “빈틈없는 영공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 안호원 회원이 14번째 칼럼 집을 냈다. 이번 칼럼 집에는 ‘여행이 그리운 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 한다’ 등 주옥같은 정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칼럼집이다. 특히 부록으로 콩트 13편이 수록되었다. 안 회원은 “7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느꼈던 슬픈 감정들, 그런 기억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지만, 아련하게 남은 슬픔이 주변을 둘러싸는 시간이 되면 나는 펜을 들어 하얀 백지에 수를 놓듯 글을 쓴다.”며 “기억을 찾아서, 세월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지만 추억의 글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지난날들의 추억을 엮었다.”고 말했다.//

안호원 회원, ‘가거라 그리움아 저 밤하늘 별빛 따라’ 수필집 출간



청주시회

청주시회(지회장 이균신)는 11월 4일 시내 상당구 중앙동에서 새마을부녀회와 지회원이 함께 감장담그기 및 금일봉을 모아 지역 불우 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12월 14일에는 지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으며 달력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충주시회

충주시회(지회장 조동주) 12월 8일 시내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회원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조 지회장은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충주시회가 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지회

평택지회(지회장 왕관현)는 12월 22일 지회원 및 가족이 함께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왕지회장은 “갑진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연말 기념선물을 각각 전달했다.//



화천지회

화천지회(지회장 김철준)는 12월 4일 군내 음식점에서 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신임 임원진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김 지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